

지역 소식통

2020년 실적 지자체 평가  
정읍시, 대응 상황 보고회

정읍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실적 지자체 합동 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승기 부시장 주재로 부서장 24명이 참석 가운데 지자체 합동 평가 89개 지표 중 정량평가 62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중간점검하고 하반기 실적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해당 지표 부서장의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업무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반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저조한 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부진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분석과 정기적인 진행 상황 점검 목표 달성 우수 지표에 대한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도와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지난 21일 장애인 복지관 주차장에서 장애인의 차량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무상점검은 현대자동차 정읍지점과 전주 서비스센터 소속 전문 정비사들의 능능기부로 이뤄졌다.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은 복지관 이용장애인과 지역 내 장애인콜택시 등 유관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는 물론 수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감소와 이동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다.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브레이크와 벨트, 에어컨 등 각종 차량 장치의 작동상태와 LPG자동차의 가스누출 여부 확인 등의 경정비로 진행됐다. 또, 엔진오일과 워셔액, 냉각수 상태를 점검 후 보충하고, 와이퍼와 전구 등의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멜론, 싱가포르 수출길 연다

## 고창군, 품질평가회 · 항공배송 통한 소비자 입맛 조사 당도 15브릭스... 외관품질 · 식미 평가 최고품질 입증

고창군이 고창멜론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해 자체 품질평가회를 추진하고, 동시에 항공배송을 통한 싱가포르 소비자의 입맛 조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남(20일) 오후 선운산농협 공용선별장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부의장 김영호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진기영 고창군농협지부장, 김기욱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갑철 수박시협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용 고창멜론의 품질 평가회가 열렸다.

이날 고창멜론의 외관품질과 식미 평가에선, 농촌진흥청의 탐과제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과즙을 이용한 당도계 측정에서도 15브릭스(Brix)가 넘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는 아삭한 식감과 멜론 특유의 향이 살아 있는 최고품질 멜론임이 입증된 셈이다.

고창 황토멜론연구회(회장 김하진)는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수출대상국 소비자 입맛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고, 싱가포르 한국 무역업체와 함께 고창멜론 생산시기인 11월부터 수출을 진행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농경지 황토 성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벚꽃에 많이 들어있는 고초균(바실러스균)이 타지역의 토양에 비해 20.3%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의 황토멜론은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되는 쌀과 벚꽃의 농경문화와 맥을 함께한다"며 "황토멜론 농업인 모두가 땅심을 살려 최고의 멜론을 생산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1톤 이상의 벚꽃을 투입한다"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대세로 떠오른 농업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명 농(農)튜버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제는 '농(農)튜버' 가 대세다

### 정읍시, 오늘부터 집중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대세로 떠오른 농업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명 농(農)튜버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해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6회에 걸쳐 총 30시간 집중교육을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농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라이브방송 등 유튜브 마케팅 교육 추진 결과 농업인 호응도가 높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구조가 정착됨에 따라 이번 농튜버 육성 교육을 추가 편성한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자상거래로 1차 농산물과 가공품을 취급하는 농업인

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의 이해와 방송 장비 활용법, 동영상 촬영기법과 유튜브 채널 운영 노하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유튜브 마케팅은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영상을 통해 생동감있게 교감하고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유망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농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자원의 영상 콘텐츠를 발굴로 지역농업인과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군 공공시설 임시휴관, 코로나 선제적 대응

### 9월 4일까지 시설별 상황따라...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휴강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부안군은 수도권 종교시설 및 광복절 집회 집단 감염이 도내에서도 연일 발생하고 있어 감염에 취약한 아동·여성 등의 이용자 비율이 높은 부안에

술회관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등을 비롯하여 특히 외부 방문객이 많은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청소년 수련원 등을 휴관하기로 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임시 휴강한다.

휴관기간은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시설별로 각각 정하고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안전총괄과장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그간 나태해진 마을가집을 다시 새물결하고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을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경로당과 무더위쉼터는 연일 폭염경보가 발효중이 있어 대상시설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심사제품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읍면 직원들의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취소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추진위원회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축제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올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오는 10월 개최예정이었던 제14회 곰소젓갈발효축제가 취소 됐다.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추진위원회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축제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올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민철)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에서 먹거리 축제 특성상 방역지침을 준수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축제를 취소하게 되었다"며 "군민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지만 곰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응원의 마음으로 젓갈소비율 많이 해줄 것을 당부" 했다.

부안군 역시 곰소젓갈발효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만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온라인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내년에는 더 알찬 곰소젓갈발효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첫발

### 용역 착수 보고회... 무장기포지 · 전봉준 장군 생가터 정비 등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전북 고창군이 지난 21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백진 교수팀이 수행한다.

용역은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은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장군 생가터'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핵심이다.

체계적인 학술용역을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무장기포지에 기념관과 역사광장, 주차장 등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 전봉준 장군 생가터 정비도 진행해 전봉준 기념관을 세우고 주변 환경 정비에 나선다. 또 주변에는 동학교육관과 동학 체험장 등도 마련해 역사 문화유적지로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특히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수 있는 사업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올해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8종의 한국사교과서 전체에서 고창 무장봉기(무장기포)의 내용이 수록됐고, 최근에는 공중과 역사탐방 인기 프로그램에서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소개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탐방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성지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와 역사탐방객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랑스러운 의향의 기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